

‘행복한 4위’ 손연재 “난 100점 만점”



남장현의 여기는 리우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 합계 72,898 3위 리자트디노바 격려하며 함께 눈물 메달 못땀지만 런던 때보다 순위 향상 리듬체조요정...이제는 인생 2막으로

마지막 연기가 끝났다. 탄성과 환호성을 토해내는 관중을 향해 손 키스를 날리고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요정은 활짝 웃었다. ‘다 끝났다’는 흥분함과 ‘잘했다’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였다.

손연재(22·연세대)가 21일(한국시간) 올림픽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4개 세부종목 합계 72,898점으로 4위에 올랐다. ‘러시아 콤피’ 마르가리타 마룬(20·합계 76,483점)과 아나 쿠드랴체바(18·합계 75,608점)가 역시 금·은메달을 휩쓸었고, 간나 리자트디노바(23·우크라이나·합계 73,583점)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10명이 겨룬 결선에서 8번째로 연기한 손연재는 후프 18,216점(3위)에 이어 볼 18,266점(4위)을 받았다. 예상대로 마룬과 쿠드랴체바는 강했다. 각각 1·3번 연기자로 나서서 후프와 볼에서 19점대를 기록하며 우승권에 진입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넘어서는 것은 무리였다. 동메달을 놓고 손연재, 리자트디노바, 멜리타 스타니우타(22·벨라루스)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끈봉이 변수였다. 끈봉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해 16,633점에 그친 스타니우타는 5위권으로 밀렸다. 손연재는 끈봉 18,300점(3위)에 이어 리본 18,116점(4위)으로 모든 연기를 마쳤다. 4년 전 런던올림픽을 5위로 마친 손연재는 리우에서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끝은 행복했던 요정

부담이 엄청났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다. 즐겨야 하는데, 결과를 의식하지 않아야 하는데, 리우올림픽은 그럴 수 없었다. 전날 예선을 앞두고 ‘결선에도 못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예선 탈락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만큼 크게 긴장했다. 예선은 5위로 마쳤다. 합계 71,956점(볼 18,266점·후프 17,466점·리본 17,866점·끈봉 18,358점)이었다. 후프에서 스텝이 꼬였다. “후회 없이, 악착 같이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면, 또 그간의 준비를 한껏 펼칠 수 있다면 기뻐서 울컥할 것 같다”는 절박한 소감을 남겼다. 그렇게 맞이한 새로운 하루. 캐롤리나 로드리게스(30·스페인)에 이어 후프

연기를 위해 무대에 오르기 전, 이상할 정도로 대기시간이 길었다. 6번째로 나선 스타니우타가 자신의 18,125점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점수가 바뀌었다. 18,200점이 됐다. 극도로 초조한 5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매트로 향한 손연재의 표정은 조금 어두웠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큰 실수 없이 연기를 마쳤다.

손연재가 모든 연기를 끝내고 대기석으로 향하자 러시아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꼭 끌어안았다. 2010년부터 6년간 러시아에서 전지훈련을 해온 손연재는 그들에게도 남다른 존재였다. “최대한 웃자. 밝게 표현하자”고 마음먹은 손연재는 3위를 확정된 리자트디노바가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나만 노력한 게 아니다. 모두가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다. 함께 고생한, 다 똑같은 선수들이다. 큰 짐을 내려놓았다. 후련하다.”

●인생 1막, 이제는 2막을 향해!

축축이 젖은 눈으로 미스트존(공중취재구역)을 빠져나온 손연재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릴 적 일기장에 적은 ‘세상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가 되자’던 그 꿈을 이뤘다. “내 자신을 극복했다. 100점 만점을 주겠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손연재는 극도의 슬럼프에 빠졌다. 운동이 싫었다. 자신이 아닌, 외부의 시선과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운동한다는 생각에 그저 힘들었다. 은퇴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 때 손연재의 마음을 돌려준 소중한 이들이 있었다. 엘레나 리프로드바(러시아) 코치와 어머니 윤현숙(48) 씨다.

스스로 말했듯 ‘러시아 사람처럼 살았다’는 6년간 엘레나 코치는 손연재를 혹독하게 조련했다. “정말 보기 싫었다. 너무 미웠다. 서로 ‘이제 그만 보자’고 다들 때도 많았다. 그런데 세계선수권 32등을 하던 나를 올림픽 4위로 만들어 주신 분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윤 씨는 아시안게임 이후 방향하던 딸에게 “아직 못 보여준 게 많지 않느냐. 올림픽까지 잘해서 유종의미를 거두자”고 설득했다. 손연재는 “홀로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지금으로 이끌어주셨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2번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치르며 1막이 흘렀다. 손연재는 아직 다음 진로를 구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할 틈이 없었다. “리우올림픽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선수가 아닌, 인생에서 큰 힘이 될 것 같다. 미래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쉼과 쉬고 싶다.”

스포츠1부 기자 yoshike3@donga.com



손연재는 21일(한국시간) 올림픽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4위로 마무리한 뒤 “큰 짐을 내려놓았다. 후련하다”고 밝혔다. 리우데자네이루 | 뉴스1

브라질축구, 징크스 깨고 올림픽 첫 금

남장현의 리우 리포트

독일전 설욕...사상 첫 올림픽 정상 타종목 하위권 성적에도 함박 웃음



브라질이 올림픽 남자축구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다. 브라질은 21일(한국시간)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리우올림픽 남자축구 결선에서 독일과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겼다. 네이마르(가운데)를 비롯한 브라질선수들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AP뉴시스

“올림픽? 우리는 축구만 바라보고 있어.” “축구, 배구, 비치발리볼만 금메달 따면 되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초반의 메달 레이스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 속에 중국과 영국이 뒤쫓는 형국이었다. 개 최극 브라질은 보이지 않았다. 9일(한국시간) 유도 여자 57kg급 이후 금메달이 나오지 않았다.

브라질이 전통의 스포츠 강국 또는 올림픽 강호는 아니지만,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개최국이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주요 외신들은 이 사실을 들어 “브라질이 어쩌면 최악의 올림픽을 경험할 수 있다. 준비상 태도 엉망인데, 성적까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브라질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태평했다. 느긋하게 “금메달을 딸 수도, 못 딸 수도 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올림픽 금메달이 이토록 나오지 않는데 정말 괜찮은가”라고 물어도 “딱히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물론 예외가 있었다. ‘국기’나 다름없는 축구였다. 자원봉사자들도, 관중도, 기자들도 ‘축구 우승’만 외쳤다. 축구만 우승하면 괜찮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후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2번째 금메달이 나온 것을 기점으로 4개의 금빛 소식 이 잇달았다. 그런데도 떠들썩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치발리볼 여자부 우승을 놓친 소식이 훨씬 크게 보도됐다.

최근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당초 브라질은 남자축구 동반우승을 목표로 삼았지만, 여자축구가 준결승에서 스웨덴에 승부차기로 패해 차질을 빚었다. 국가대표인 2016코파아메리카를 건너 소속팀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설득해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킵틴’ 네이마르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충격적 패배를 경험한 여자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맥없이 무너졌다.

다행히 그토록 원하던 ‘그림’이 나왔다. 21일 ‘브라질축구의 성지’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브라질이 사상 첫 올림픽 정상을 밟았다. 드라마틱했다.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독일을 눌렀다.

손에 땀을 쥐게 한 ‘11m 러시아 룰렛’이 끝나자, 브라질인들의 행복감은 극에 달했다. 마라카낭도, 올림픽 경기장도, 미디어센터도 브라질인들의 환호로 물결쳤다. 특히 상대가 독일이었기에 쾌감이 더 컸다. 2년 전 브라질월드컵은 브라질에 치욕으로 기억된다. 벨루오리존치에서 벌어진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처참하게도 1-7로 대패했다. ‘시나리오’대로라면 브라질은 마라카낭에서 월드컵을 들어올려야 했다.

2년 만에 동생들이 형들의 아픔을 되갚았다.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레이스가 아니면 경기가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빠져나갔던 브라질인들이 모처럼 시상식을 끝까지 지켜봤다. 전 반적인 대회 흥행은 큰 차질을 빚었으나, 축구만큼은 달랐다. 육상 외에 가장 좋아하는 종목으로 축구를 뽑았던 볼트도 마라카낭을 직접 찾아 브라질 우승의 기쁨을 공유했다. 월드컵을 5차례 현상 취재한 브라질 프리랜서 기자 베르토 이리스(57)는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축구가 지닌 의미는 다르지만, 이곳(브라질)에서 느끼는 가치는 똑같다. 특히 올림픽 첫 우승이라 훨씬 값진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스포츠1부 기자 yoshike3@donga.com

디아고스티노·햄블린 ‘페어플레이상’

육상 女 5000m 넘어진 경쟁자에 손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육상 경기 도중 넘어지고도 경쟁자인 서로를 돌리며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에비 디아고스티노(미국)와 니키 햄블린(뉴질랜드)이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페어플레이위원회(CIFP)는 21일(한국시간) “올림픽에서 승리와 패배, 신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우정과 존중이다. 둘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메달 이상의 값진 상을 받은 햄블린은 “디아고스티노와 나에게 모두 특별한 올림픽이다. 우리는 강한 경쟁자였고, 트랙 위에서 최선을 다

했다”며 “나를 일으켜 세워준 디아고스티노에게 정말 고맙다. 그녀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16일 벌어진 여자 5000m 예선에서 두 선수가 보여준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디아고스티노와 햄블린은 약 20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넘어졌고, 먼저 일어선 디아고스티노가 실망감에 빠져있던 햄블린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디아고스티노가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햄블린이 디아고스티노를 일으켜 세웠다. 둘은 질투거리면서도 완주에 성공한 뒤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서대경 기자 seody3062@donga.com

3관왕 볼트, 여자친구에 ‘골든 프리포즈’

3회 연속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세계적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사진)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대중지 더 선은 21일(한국시간) “우사인 볼트의 누나 크리스틴 볼트가 ‘동생이 올림픽을 마치고 자메이카로 돌아온 직후 여자친구에게 프리포즈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볼트의 여자친구는 자메이카 국적의 모델 케이지 베넷(26)이다. 볼트는 지난 2년간 비밀연애를 해오다 올해 초 여자친구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베넷의 사진을 올리며 ‘영부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크리스틴은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 모두 우사인 이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있다. 동생도 그동안 결혼 계획에 대해 가족에게 자주 얘기했다. 2세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안다. 우사인이 조만간 또 하나의 꿈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트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

달을 목에 걸며 육상 사상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또 총 9개의 금메달로 올림픽 육상 사상 개인통산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도 세웠다. 볼트는 20일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트랙에 입맞춤하는 등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특별한 세리머니를 펼쳤다. 내년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할 계획을 일찌감치 공표한 바 있다. 역대 최고의 단거리 육상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볼트가 결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듯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